

변동성이 심한 한국 증권 시장

한국에 3년간 머물면서, 한국시장대한 관심이 비교적으로 비약했다. 오히려, 먼 미국 시장 관련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미국 펀드 매니저들관련된 자료들도 더 많이 파헤쳤다. 왜냐하면, 먼저 언어 소통이 편하고, 업무하면서 사용하는 excel 파일이 미국 웹사이트하고 sync가 되어있고, SEC 보고서 포맷도 익숙해져서, 이 분야에 먼저 다른 투자들 사이에 인정을 받은 후, 다시 한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싶었다. 그 각오를 만든지 벌써 3년이 되었다. 인제, Warren Buffet처럼, 한국 시장에 매력을 직접 느끼고 싶다.

2013년 8월에 한국 시장을 본격 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Dart 웹사이트를 하루에 수십번을 방문하면서 하나씩 기업분석을 시작했다. 대략 20개 분석을 한후에,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와.. 한국 시장 저 평가는 분명하다. 근대, 왜 이렇게 싸지?" 많은 지인들 한태 이 질문을 물어봤다. 답변은 다양했다. Korean discount은 북한 때문에 그렇던지, 아니면 cross holding issue와, majority shareholder issue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많은 이유들이 배경에 있지만, 더 큰 이유는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서 저 평가 라고 생각을 한다. 미국 M&A 시장은 활발하다. 매번, 큰 거래를 확정할 때, 주식 가격은 평균 band 보다, 많이 옳은다. 그리고, 전 sector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 M&A 시장은 미약해서, premium valuation이 시장에 반영이 안되었다. 저 같은 가치투자자들한테는 좋은 투자 환경이다.

미국 시장 보다, 배당을 돌려주면서, P/Net tangible book value, P/FCF 이 낮은 회사들 개수로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잘못 하는가 의심이 들만큼 회사 가치가 낮은 편이다. 8월에 한달간 여덟개 회사를 Buy 평가를 줬다. 한동안, 주식 가격이 모두 다 상승장구 했다. 그렇지만, 미국 사장에 tapering 관련된 우려와 미국 budgetary issue들이 보도되면서, 한국시장은 급하게 하락했다.

한국 시장의 매력은 저 평가이지만, 장미 꽃에 가시 처럼, 시장의 위험성은 심한 변동성이다. 북한 소식, Samsung관련된 소식, 미국중국일본 관련된 소식이 터지면, 한국시장은 심히 반응한다. 물론, 어느 투자들은 변동성 안에서 기회를 찾을수있지만, 불안하게 만들 만큼 심하게 움직인다.

한국 권련해서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아두어야 할 시간이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서, 한국시장에 쉽게 여기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한국 시장이여, 기다려라, 너의 새로운 친구가 왔노라!